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07

생활툼: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조경숙 만화평론가

37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조은아 피아니스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생활툰: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조경숙

만화평론가

2000년 전후 시작된 웹툰은 2021년 현재, 그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는다. 초창기 웹툰은 산업이라고 부르기에 턱없이 작은 규모였지만, 현재는 명실상부 콘텐츠 산업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초창기 웹툰은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웹진 등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었지만, 지금은 대형 웹툰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거래된다. 카카오웹툰, 네이버웹툰 등 국내 굴지의 대형 IT 기업들이 저마다 웹툰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출시된 카카오웹툰은 출시한 지 이틀 만에 거래액 1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¹⁾

IP(콘텐츠 지식재산권) 산업에서도 웹툰은 인기가 좋은 미디어다. 국내 유수의 드라마·영화 제작사는 물론이고 해외 영상 서비스까지 직접 국내 웹툰을

1) 이재민. (2021. 8. 3). <카카오웹툰 이틀만에 거래액 10억 원 돌파...성공적 출발 알렸다>. 웹툰인사이드. <https://www.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7897>

원작으로 하는 영상물을 다수 제작했다. 영상화 사례가 어느 하나의 장르에 편중된 것도 아니다. <유미의 세포들>(tvN, 2021), <미생>(tvN, 2014), <경이로운 소문>(OCN, 2020-2021), <이태원 클라쓰>(jtb, 2020) 등의 작품만 살펴봐도, 로맨스부터 드라마(극서사)·SF에 이르기까지 영상화 되는 작품의 장르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웹툰 통계를 제공하는 웹툰 미디어 웹툰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현재까지 웹툰의 작품 총수는 완결작을 포함해 5만여 개에 이른다.²⁾ 그중에서도 디지털 전송권 만료 등에 따라 더이상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작품까지 따지자면 그보다 훨씬 작품 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웹툰 작품은 대체로 학원물/로맨스/무협/액션/판타지/공포/호러 등 다양한 장르에 두루 포진해 있지만,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장르가 편중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네이버 웹툰에는 학원물 작품이 많고, 카카오페이지에는 로맨스 판타지 작품이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웹툰 내 장르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웹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작품에 대한 독자와 시장의 반응이 빠

2) 웹툰인사이트. (2021.08.21). <웹툰 전체 장르별 통계>. <https://www.webtooninsight.co.kr/Statistic/Total>

르게 확인되고 또 반영된다는 것이다. 대형 웹툰 포털에 새로운 작품의 연재가 시작되고 나면, 같은 요일 연재작 가운데 랭킹이 매겨져 순위를 손쉽게 판가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별점 평균, 댓글 수 등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통해 개별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빠르게 수집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정성적 반응 역시 댓글란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웹툰 <복학왕>은 2020년 8월 <광어인간> 에피소드에서 여성 캐릭터 ‘봉지은’이 마치 성관계를 통해 회사에 입사한다는 듯한 장면을 그려 독자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오만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해당 회차의 에피소드에 접속하여 별점을 매기고 작품을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네이버웹툰과 <복학왕>의 작가 ‘기안84’는 사과 공지를 올리고, 해당 장면을 수정한 바 있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웹툰 <고수>는 사부의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 오랜 시간 동굴에서 수련하다 나온 ‘강룡’이 주인공인데, 수련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니 이미 사부의 원수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이미 원수들이 죽어 허망하게 목표를 잃어버린 강룡에 대해 일부 독자들이 ‘언제 원수에게 복수하러 가냐’고 댓글로 항의하자, 작가들은 이를 작품에 반영해 시나리오를 선회하기에 이른다. 프롤로그에 이미 다 그려져 있는 설정 자체를 뒤튼 것이다. 독자는 작품에 댓글을 남기고, 작가들은 이 피드백을 작품에 반영한다.

또한 웹툰은 독자들의 피드백에 빠르게 반응하는 만큼, 사회적 흐름과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체다. 뒤에서 상세히 다룰테지만, 페미니즘 리부트(reboot)의 원년이라 불리는 2015년 이후 여성서사 웹툰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도 그 예 중 하나이다. 2015년 다음 웹툰에서 20대 비혼 청년 여성인 '이시다'를 주인공으로 20대 여성의 노동과 주거, 삶에 대해 풀어낸 <혼자를 기르는 법>(김정연, 다음웹툰)은 연재 당시 독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웹툰 플랫폼이 아닌 개인 SNS에서 기혼 여성의 결혼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웹툰 <며느라기>(수신지)는 SNS 웹툰 최초로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웹툰 산업 안에는 웹툰이 소비되는 현 시대상과 계속하여 접합하며 창발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작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그저 서사 측면에서만 새로운 게 아니라, 주제와 연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유의미한 실험을 해낸다. 주연과 조연이 맺던 관계성을 비틀어 새로운 관계적 구도를 만들어 내고, 기존의 클리셰(cliché)를 깨부순다. 또한 지금까지 만화의 주인공으로서 본 적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늘 비치던 각도가 아닌 새로운 구도에 캐릭터를 세운다.

많은 장르의 작품이 새로운 시도를 해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제적 다양성을 견인해 온 건 생활툰이다. 생활툰은 특히 웹툰의 탄생과도 함께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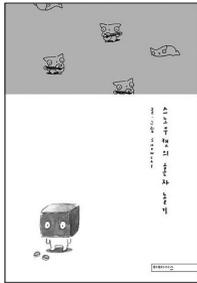
장르다. 생활툰의 주인공은 대개 작가의 페르소나를 반영하는데, 이들이 살아 가는 구체적인 일상의 꺾을 보여준다. 일상엔 모든 사람이 영위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서사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인 내러티브가 되기도 한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이렇게 썼다. “외관상 빈약한 일상성의 밑에 숨겨진 풍요로움을 폭로하는 일, 경박성 밑에 깔린 심오함을 드러내는 일, 정상성의 비정상성을 꿰뚫어보는 일, 이것들은 모두 노동자의 생활에 근거를 둠으로써만, 그리고 노동자의 창조력을 부각시킴으로써만 분명해지고, 또 진실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었다.”³⁾ 앙리 르페브르는 노동자의 일상을 맑스주의의 연장에서 정치적 실천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았다. 그의 이 같은 표현은 생활툰과도 관련이 깊다. 생활툰은 일상 속의 ‘경박성 밑에 심오함’을, ‘정상성의 비정상’을 꿰뚫어 그를 공론장으로 내보이는 장르다. 생활툰은 대개 귀여운 그림체와 소소한 일상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수자들의 일상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감각을 일깨워낸다. 사회를 이루는 이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일상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사회적인 의미를 길어

3) 앙리 르페브르. (2016). 현대 세계의 일상성.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일상성 (편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78.

올리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생활툰에서 자전서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
가며, 주요 작품들을 통해 생활툰이 확장한 세계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일상의 발견: 성소수자, 장애인의 목소리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Snowcat 지음,
Snowcat 그림, 미메시스)

생활툰은 웹툰의 시작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2018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진행한 <만화포럼 칸>에서 만화 연구자들은 <스노우캣>(1998, 권윤주)을 최초의 웹툰으로 합의한 바 있다.⁴⁾ <스노우캣>은 권윤주 작가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스노우캣’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연재하던 생활툰이다. 여기에 그는 단순히 일상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취향과 감성을 적절히 드러내어 당대 청년들의 공감대를 샀다. 1990년대 후반 작가 개인 홈페이지에서 연재되어 온 생활툰 <스노우캣>, <마린블루스>는 1세대 생활툰이라고 불린다.

4) 윤기현. (2018). 최초의 웹툰, <스노우캣>. <2018 만화포럼 칸-웹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7.

1세대 생활툰 작가들은 당초 개인 홈페이지에서 시작했지만, 작품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만화를 묶어 책으로 출간하고, 캐릭터 상품을 내는 등 그들이 게시한 만화가 사업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생활툰 작가들의 성과에 힘입듯, 그 이후 생활툰은 개인 홈페이지를 넘어 다음,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포털 서비스에서 무료 웹툰 서비스로 론칭(launching) 되기에 이르렀다. 개그를 중심으로 일상을 시트콤처럼 풀어낸 <마음의 소리>(조석, 네이버웹툰),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을 재치 있게 그린 <냠이 사는 이야기>(냠, 네이버웹툰), 만화가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결혼해도 똑같네>(네은비, 다음웹툰) 등 플랫폼에 연재되는 생활툰도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해졌다.

‘재미있고 귀여운 만화’로 소비되던 생활툰 장르에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된 건 2010년을 전후해서다. 네이버웹툰에 처음으로 성 소수자 당사자가 그린 생활툰 <모두에게 완자가>(완자, 네이버웹툰, 2012~2015)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완자가>는 레즈비언 커플의 생활툰으로, 작가인 ‘완자’와 애인인 ‘야부’가 주된 등장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재가 진행되던 시점까지 10년이 넘게 사귀었다. 완자 작가는 사회에서 학습되어 오던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동성애의 모습 이외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동성애자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작품 창작의 계기를 밝혔다. 그 말

마따나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성 소수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⁵⁾

웹툰 초반부에는 완자와 야부가 만나게 된 이야기와 데이트 모습들이 소소하게 그려진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완자와 야부는 서로를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고 싶어서 하교 후 늘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들른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다가, 나중엔 핸드폰으로 시시콜콜하게 문자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엔 연인으로 발전한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하철에서 손을 꼭 붙든 완자와 야부 커플의 모습은 다른 커플들과 다르지 않다. 회사 반경 1km 이내에서 스킨십을 절대적으로 삼가고 직장 동료들에게 애인을 숨겨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비밀 커플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레즈비언으로서 완자와 야부가 감수해야 했던 특수한 경험은 ‘아웃팅(outing)’에서 드러난다. 아웃팅은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적 지향이 알려지는 것을 뜻한다. 완자와 야부의 아웃팅은 어처구니없이, 순식간에 자행

5) 남은주. (2014. 6. 11). “우리는 커플 할인에 여성 할인까지 받는단다”: 동성애자의 사랑 그린 네이버웹툰 ‘모두에게 완자가’의 완자 작가와 야부를 만나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641901.html

됐다. 야부와 완자가 교제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주변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학교의 담임선생님, 학원 친구들, 학원 선생님들까지 그들을 싸늘하게 대한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매일같이 종례 후 완자를 따로 불러내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기도를 하고, 학원 선생들은 강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공동체 생활(규범)을 모르는 애들이 있다'며 완자-야부 커플을 비난한다. 완자와 야부가 겪어낸 아웃팅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무겁고 진지하게 그려진다. <모두에게 완자가>는 보편적인 연인의 모습과 성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적 상황을 대비시켜 보여주며, 평범한 연애의 시간과 성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경험들이 '보통의 일상' 속에 공존한다는 것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웹툰 <모두에게 완자가>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향해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는 형태를 취한다. 그 때문에 에피소드의 상당수는 완자와 야부뿐만 아니라 그들 커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모두에게 완자가>는 완자와 야부의 연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애 생활툰이라기보다, 성 소수자의 차별과 일상이라는 주제에 천착하여 독자를 대상으로 말을 건네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방식으로 성 소수자의 일상을 그려 낸 작품이 있다. <모두에게 완자가>가 작품 종반을 향해 달려가던 2014년,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게이 생활툰 <이게 뭐야> (지지, 다음웹툰, 2014~2021)다.

〈이게 뭐야〉의 전략은 사뭇 다르다. 〈모두에게 완자가〉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연애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방식으로 주로 공통점을 그렸다면, 〈이게 뭐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둘만의 연애의 모습을 표현해낸다. 〈이게 뭐야〉의 주된 연인인 ‘지지’와 ‘로별’은 함께 데이트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치고 박고 싸우는 혈투를 하고 있고, 빠진 연인의 기분을 풀어주다가도 갑작스럽게 성관계로 전환되기도 하는 이 두 연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특히 성관계 장면에서는 생활툰이 고수하는 귀엽고 단조로운 캐릭터의 모습이 아니라 실사체를 사용하여 보다 노골적인 동성 성애의 모습을 연출한다. 〈모두에게 완자가〉가 애초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직시하며 호모포비아를 향해 설득하는 발화를 기본으로 한다면, 〈이게 뭐야〉는 누가 뭐라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한다는 컨셉으로 양분되어 있다. 성소수자 당사자가 발화하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두 작품은 공통점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층위의 일상을 내보이며 다양성의 지평을 넓혔다.

소수자성을 지닌 당사자가 자신의 일상을 직접 이야기하는 생활툰 가운데에는 장애를 주제로 하는 작품도 있다. 청각 장애인인 작가 ‘라일라’가 그린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라일라, 네이버웹툰, 2015-2017)이다. 〈나는 귀머거리다〉는 집에서 잠을 자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등 지극히 작가의 일상적인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게 평범한 장면



나는 귀머거리다
(라일라 지음, 라일라 그림,
서울미디어코믹스)

들로 보이지만 열쇠를 두고 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다른 가족이 라일라를 깨워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학교에서 청각 장애인이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것, 자막이 없는 한국 영화를 감상하기 어려워하는 것 등 작가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절대 쉽지만은 않은 일상의 모습이 그려진다. 가족들은 잠자는 라일라를 깨우기 위해 창문 사이로 나뭇가지를 넣어 라일라를 찢러 깨우거나, 갖고 있는 고구마를 던져 자신이 창밖에 있음을 보이려 한다. 고등학교 때에는 선생님이 농담을 해도 혼자 듣지 못해 웃을 수 없었는데, 대학교에서는 수업 도우미가 지원되어 교수님의 농담도 바로 보고 웃을 수 있다. 독자들은 웹툰에 펼쳐진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을 통해 청각 장애인 라일라에게 대입됨으로써, 그의 시각으로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사실 청각 장애인이면 다른 장애에 비해 불편한 게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자주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2화 베스트 댓글 중)

“작가님도 아버님도 내가 비장애인이기에 몰랐었던 불편이 이렇게 크구나..(중략) 청각 장애인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화 베스트 댓글 중)

〈모두에게 완자가〉의 일상과 〈나는 귀머거리다〉의 일상은 다르다. 전자가 작품을 통해 ‘성 소수자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는 보편성을 획득한다면, 후자는 반대로 누구에게나 평등하리라 생각되는 보편적 상황 속에 감추어진 소수자성을 꺼내놓는다. 이 두 가지 다른 전략은 이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도 연관되어 있다. 완자가 아웃팅 당했을 때 선생님들이 보였던 반응마따나 성 소수자는 다른 이들에게 해로운 존재로 인식되고, 교실에 우두커니 앉아 들을 수 없는 수업을 듣는 라일라처럼 장애인은 있어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들에게 ‘일상’은 사회적 차별에 대해 독자의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서로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긴한 소재로써 활용된다.

페미니즘 리부트와 생활툰: 혼자를 기르는 법, 며느라기

2015년은 웹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다.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 덕택이다. 이 시기 생활툰 장르도 페미니즘 리부트 바람에 큰 영향을 받았다. 2015년 디시인사이드에 ‘메르스 갤러리’가 생겨난 이후, ‘메갈리안’은 2015년 이후 페미니스트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멸칭으로 자리 잡았다. 이 당시 웹툰계에도 큰 파급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넥슨 <클로저스> 게임 성우 교체 사건이다. 당시 넥슨에서 서비스하던 게임 <클로저스>의 여성 캐릭터 목소리를 맡은 성우가 개인 SNS에 게시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다.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가 찍혀 있었는데, 이 티셔츠는 메갈리아 커뮤니티에서 낸 굿즈 중 하나였다. 이에 <클로저스>의 일부 게임 유저들이 즉각 반발하여 넥슨에 해당 성우의 하차를 요구했고, 넥슨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 일이 공론화되자 이번에는 SNS에 넥슨을 향한 비판적 흐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성우 교체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 가운데에는 웹툰 작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대응에는 편차가 있었다. 어떤 작가는 자신이 직접 넥슨에 대한 비판 의견을 게시했지만, 대다수는 비판 의견을 리트윗하거나 공유하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안타-페미니즘을 표방한 이들은 성우를 옹호하는 웹툰 작가들을 찾아내 그들의 작품이 연재되는 플랫폼에 몰려와 낮은 별점과 악성 댓글을 악의적으로 쏟아 부었다. 작가 개인의 SNS를 검열할 뿐만 아니라, SNS의 활동을 작품에 반영해 부당한 공격을 일삼은 것이다.

이 외에도 웹툰계에 불어온 ‘페미니즘 리부트’의 영향은 매우 컸다. 독자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소비했던 성적 대상화 연출을 지적하고, 작품 내에 돌출된 성차별적 요소를 비판했다. 일부 웹툰 작가는 독자들의 비판을 수용해 장면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웹툰 〈뷰티풀 군바리〉의 경우에는 과도한 성적 대상화 연출로 인해, 연재 중단 청원이 일기도 했다. 또한 미투 운동 등을 통해 SNS에서 여성들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그와 같은 궤를 이루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들이 창작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은 〈혼자를 기르는 법〉, 〈며느라기〉, 〈단지〉(단지, 레진코믹스, 2015~2017)다. 이들 작품은 매회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세 작품 모두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작이기도 했다. 〈혼자를 기르는 법〉은 홀로 사는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단지〉는 가부장제 아래

억압당해왔던 딸들의 이야기를, <며느라기>는 일상적으로 차별 받아 온 며느리의 시점을 담아낸 생활툰이다.

먼저 살펴 볼 웹툰 <혼자를 기르는 법>의 주인공은 '이시다'. '이시다'는 기존 생활툰과 달리 허구의 인물이다. 기존



혼자를 기르는 법. 1, 2 (김정연 지음, 창비)

의 생활툰은 작가가 주로 주인공 캐릭터로서 카툰화되어 등장했다. <늪이 사는 이야기>의 '늪'은 작가 '늪'과 동일 인물로 상정되고, <마음의 소리>의 '조석'도 작가 '조석'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작가의 페르소나를 강하게 반영한 캐릭터로, 캐릭터가 둘러싼 인간관계나 그가 지닌 욕망은 모두 작가의 것으로 등치시켜 이해되곤 한다. 반면 '이시다'는 작가의 페르소나가 일부 반영되어 있긴 하나, 이름도 인간관계도 직업도 모두 작가의 그것과 같지 않다. 그럼에도 작중에서 '이시다'가 겪는 일상만큼은 실제 서울을 살아가는 20대 여성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매우 현실적이다.

'시다'는 현실과 이상의 낙차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캐릭터다. 본래 '이시다'라는 이름은 높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지만, 사무실에서 이시다는 '시다'(막내)로 굴려진다. 그는 인테리어를 업으로 삼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과 정반대다. 군더더기 없

이 깔끔한 가구를 갖고 싶었지만 꽃무늬가 덕지덕지 인쇄된 가구를 들고,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을 원했지만 세 들어 사는 입장이라 인테리어는 꿈도 꾸지 못한다. 시다의 처지는 시다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 햄스터 ‘주윤발’의 상황도 비견된다. 작은 케이지 안에서 쉽없이 바퀴를 굴리는 윤발을 보며 시다는 시간의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일상을 굴리는 자신을 대입한다.

〈혼자를 기르는 법〉에는 1인 청년 가구의 현실을 노동과 주거 면에서 짚게 드러냈지만, 무엇보다도 20대 여성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민낯을 투명하게 그려낸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이다. 밤늦게 놀다가 골목길에서 담배를 태우던 ‘시다’는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시다에게 태연히 접근한 두 명의 남자는 “감사하니까... 오빠들이 재밌게 해줄게.”라며 시다를 위협한다. 시다는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놓고 내달릴 정도로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온다. “자정을 넘긴 딸들만이 서울을 알아갑니다.” 그 경험에 대해 시다는 담담하게 독백한다. 그리고 피해를 조심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제한당하는 현실을 ‘안전’ 감옥에 빗대 표현한다(〈혼자를 기르는 법〉 16화 중).

여기서 시다가 겪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 문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터져나온 ‘동시대성’의 목소리 중 하나다. 2015년부터 SNS 등지에서 ‘#나는_페미니스트다’ 해시태그를 달고 쏟아진 글들은 일상 속에서 겪었던

성폭력 사례를 담아냈다. 여성과 안전에 대한 주제는 <혼자를 기르는 법> 외의 다른 생활툰에서도 드러난다. 웹툰 <어바웃 블랭크>(모모, 케이툰)에서는 여성의 자취방을 노린 범죄에 대한 뉴스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그 뉴스 이후 자신의 방에 누가 침입할까 두려워하는 주인공 ‘봄’의 모습이 그려진다. 뉴스를 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봄’의 방문을 누군가 덜컥거리며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봄’은 그 이후로 자신의 방에 걸개를 설치하다가 이 상황이기가 막히고 억울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어바웃 블랭크> 34화 중)

웹툰 <며느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특히 <며느라기>는 웹툰 플랫폼이 아닌 작가 개인의 SNS에서 연재되어 온 작품이다. SNS 플랫폼에서 유통되기 편한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연속시켜 컷툰처럼 연출한 <며느라기>는 신혼부부 ‘민사란’과 ‘무구영’의 결혼생활을 담았다. 특히 결혼생활 중에서도 시가와 며느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 냈다. 이 작품은 아침드라마처럼 격정적인 고부 갈등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차별의 순간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여성들은 부엌으로, 남성들은 소파로 양분화되는 모습이나 명절에는 항상 시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관습, 며느리에게는 찬밥을



며느라기
(수신지 지음, 수신지 그림,
골프프레스)

주고 갓 지은 더운밥은 다른 가족에게 나누는 차별 같은 것들이다. <며느라기>는 밥을 짓는 것부터 먹는 데에까지 미치는 차별의 순간들을 며느리의 관점에서 섬세하게 조명한다.

<며느라기> 연재 당시, <며느라기>에 쏟아지던 독자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며느라기 연재 계정의 팔로워는 60만 명에 달했고, 업로드하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며느라기>를 영상화한 웹드라마 <며느라기>는 공개한 지 이틀 만에 9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며느라기>를 그린 '수신지' 작가는 인터뷰에서 "연재하면서 댓글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이걸로 고통받고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꾼다는 걸 느꼈다" 고 말한다.

그간의 생활툰에서 '며느리'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주체였다. 생활툰이 다양해지면서 결혼과 육아를 소재로 한 생활툰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나, 그 안에 엄마/아내로서의 여성은 있더라도 며느리로서의 면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대다수의 생활툰이 실존하는 인물, 실재하는 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아무래도 작가 스스로 조심스러웠으리라 추측된다. 작품 안에서 다루는 에피소드에 의거해 독자들이 실존하는 인물에게 공격을 삼은 일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를 작품에 등장시키는 건 작가 개인에게도 큰 부담이었으리라. 며느리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며느리 캐릭터를 작품에 등장시킨 사례는 웹툰 <아랫집 시누이>(김진, 네이버웹

■

생활툰, 자전서사 만화의 밀거름이 되다.

생활툰은 자전 서사의 문법과도 관련이 깊다. 조운숙은 생활툰을 “자전적 작품들 중에서 가장 ‘현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조”라고 일컬으며, “일상의 누적이 사후적으로 자전적 작품을 구성”하는 형태라고 분석했다.⁶⁾ 작가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가 자신이 겪은 일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형상화한다는 데에서 생활툰을 ‘자전적 서사’라고 부른 것이다. 페미니즘 리부트의 물결과 더불어 독특한 형식의 자전 만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생활툰의 이러한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단지 작가의 <단지>이다. <단지>는 가정폭력에 점철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은 생활툰이다. <단지> 안에 그려진 가족사진에서는 다른 가족과 달리 주인공 ‘단지’에게만 고양이 귀와 꼬리가 달려있다. 가족이라는 집단 안

6) 조운숙, (2018). 자전적 텍스트로서의 만화유형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46, 203-204.

에 포용 되지 못하고, 동떨어진 듯한 주인공의 모습을 표상한 것이다. 특히 <단지>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내며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지를 선명하게 표현했다.



단지 1, 2 (단지 지음, 단지 그림, 레진코믹스)

<단지>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주로 지목되는 건 엄마다. 단지는 세 남매 중에 둘째로, 위아래로 남자 형제가 있다. 자녀가 세 명이나 되지만 엄마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 언제나 단지만을 찾는다. 단지는 아래 동생을 돌보아야 하며, 가사를 도와야 하고, 일이 있어도 만사 제치고 엄마를 도와야 한다. 그런데도 단지에게 엄마는 언제나 폭력적이다. 한 번은 서랍장을 열기 힘들어하는 어린 단지에게 엄마는 “병신같은 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 이 걸로 눈깔을 콧 찻터버릴까 보다!”하며 송곳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 송곳 사건은 단지에게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는다. 엄마는 언제나 단지에게 억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존재다. 그러나 이 작품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로서 ‘엄마’를 조명함과 동시에 엄마 역시 가부장제 안의 피해자였음을 중첩적으로 밝혀낸다. 표면적으로는 엄마와 딸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실 그 안에서 이득을 누리는 것은 가족 안의 남성들이다.

〈단지〉는 생활툰의 형식으로 속 깊은 가정폭력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단순화된 캐릭터, 단조로운 컷을 통해 이야기의 장벽을 보다 낮추면서 다가간다. 특히 〈단지〉는 마치 친구에게 대화하듯 작품을 구성했다. 박인하 만화 평론가는 〈단지〉의 이러한 구성에 대해 “〈단지〉의 주인공 ‘단지’는 칸 안에서 말을 하고, 〈단지〉를 그린 ‘단지’는 칸 바깥에서 설명한다. 칸 안에서 스스로 말하기가 상처를 ‘되돌아보는 행위’라면, 만화 밖의 독자들에게 말 걸기는 ‘대화하기’다.”라고 분석한다.⁷⁾ 〈단지〉의 서사가 독자들을 향한 ‘말 걸기’였던 만큼, 독자들도 〈단지〉의 이야기에 기꺼이 응답했다. 〈단지〉 시즌 1이 작가 개인의 가정폭력 서사였다면, 시즌 2는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독자들의 경험들로 채워졌다. 단지는 독자들이 보낸 사연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다. 사연을 보낸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단지〉 이후 웹툰/만화를 통한 자전 서사는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딜리헵’, ‘포스타입’ 등 웹 콘텐츠를 작가가 자율적으로 연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의 등장도 크게 기여했다. 기존 웹툰 플랫폼은 작품이 플랫폼 회사에 발탁되어야 정식 연재가 가능한 반면, 오픈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7) 박인하. (2015. 8. 4). 단지-상처받은 여성이 웹툰의 주인공인 이유. <주간경향>.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508041608101&code=

게 자신의 콘텐츠를 유/무료로 설정하여 업로드할 수 있다.

자살 유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나는 자살생존자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가해자 목회인의 자녀가 그린 <요정 이야기>, 작품 연재 종료 후 차기작을 내지 못한 만화가의 일상을 다룬 <꾸질이 이야기>와 같은 작품들이 모두 오픈 플랫폼에서 연재됐다. 이들 작품군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일상을 깊이 있게 다뤘다.

■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것

나의 세상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킬 때 나는 그 세계에 대한 나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의 세계를 전할 때 나는 동시에 이 세계를 전유했던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⁸⁾

32

생활툰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일상을 공론장에 꺼내놓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 이외에도 유의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생활툰 작품이 꽤 많다. 웹툰 <즐거우리 우리네 인생>(현이씨, 케이툰)에서 주인공 ‘현이’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다가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눈물을 쏟는다. 그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과 대면하며 자신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를 만화의 컷으로 옮겨 그린다. 한편 웹툰

8) 아그네스 헬러. (2016). 일상생활의 추상적 개념.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일상성 편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115.

〈안녕, 외롭고 수상한 가게〉(최임수, 레진코믹스)는 카페를 차린 자영업자 ‘임수’의 이야기다. 카페를 찾아오는 여러 진상 손님, 사랑을 듬뿍 주는 단골 손님, 커피 재료들을 날라주는 업체 등 작은 카페에 오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임수’는 카페를 차린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고민한다. 또한 쇼쇼 작가가 그린 웹툰 〈아기 낳는 만화〉(쇼쇼, 네이버웹툰)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자신의 일상을 만화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생활툰 작가는 독자를 의식하며 경험을 다듬고 생각을 발전시킨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실마리를 잡아 채 자기만의 사유로 밀고 나가고, 서로 다른 여러 사건을 한데 조합하면서 맥락을 만들어 낸다.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재인식하고, 그 세계 안의 자아를 다시 위치시키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 생활툰이다. 비슷한 수준에서 유사한 일상을 영위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경험을 인식하고 말하기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서사가 된다. 생활툰이 담아내는 것은 ‘재구성된 일상’이고, 세계와 주체의 재인식이다. 생활툰 작품들은 단지 서로 다른 일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작가가 지닌 고유한 자기인식을 보여준다.

트래픽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웹툰 시장이 2013-2016년 사이 유료회차 결

제 모델을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결제율이 낮은 생활툰은 웹툰 시장에서 다소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독립일기>, <모죠의 일기> 등 청년들의 일상을 대변하는 웹툰은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생활툰은 웹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엿보이는 장르다. 독자들은 생활툰을 통해 자신과 다른 위치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다른 주체들의 삶을 이해하기도 하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더 전진하는 사유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식을 확장하기도 한다. 일상을 통해 생활툰이 만들어졌지만, 생활툰을 통해 더 많은 일상에 변화가 이는 것이다. 간혹 생활툰은 ‘귀엽고 그리기 쉬운 만화’라는 오명을 쓰곤 하지만, 생활툰은 언제나 일상을 다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너른 지향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장르였다. 생활툰 안에 담길 더 다양한 일상, 더 많은 주체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조 은 아

피아니스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실내악은 벗들의 음악이다. 2중주부터 9중주까지 가깝게 둘러앉아 또아리를 이룬 연주자들은 숨소리와 눈빛을 은밀히 교환하며 서로에게 집중한다. 다양한 성부가 동시에 어울리는 음악적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연주자들 사이 친밀한 우정이 자연스레 싹트곤 한다. 함께 연주하는 멤버와 사사로이 다뤘더라도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합을 맞추게 되니 일상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악기들이 주고받는 실내악의 친밀한 대화는 갈등을 무력화시키는 현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작곡가들도 실내악을 작곡할 땐 관객을 사로잡을 연주효과 만큼이나 연주자들의 음악적 우정을 섬세히 고려한다. 서로의 교감을 존중하는 합주의 즐거움은 실내악의 오래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독주에 비해, 앙상블을 이루는 협업은 소통과 이해가 최우선이다. 몇 해 전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내림 마장조 작품 47>과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바단조 작품 34>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현악

4중주단과 리허설을 함께 했었다. 홀로 연습하던 독수공방으로부터 해방되어 떨 듯이 기뻐다. 반쪽짜리 대본에 의지해왔던 배우 마냥, 청각적 상상으로 나 떠올리던 상대편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어 설레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명은 오래 전부터 현악4중주단을 결성해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왔었다. 피아노와 현악기군의 이질적인 울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리허설 내내 심신의 귀를 종긋 세웠다.

리허설이 거듭될수록, 피아니스트인 나는 현악주자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며 고감할 수 있었다. 바이올린 주자는 실내악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독주회가 무대 위에서 홀로 펼치는 고독한 ‘모노드라마’고, 오케스트라 연주가 대규모 인원들을 등장시키는 화려하고 장대한 ‘블록버스터’라면, 실내악은 주연 배우 네다섯이 펼치는 고도의 ‘심리극’이라는 것이다.

실내악에서는 주·조연의 계급 구별이 없다. 모든 성원은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익명성의 거대한 음향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없다. 내 악기의 개성적인 음색은 다른 주자의 목소리와 확연히 분별되어 들리기 마련이다. 그러니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이 몰입하게 되는 장르는 순차적 동선으로 연결되곤 한다. 처음엔 강력한 음향을 내뿜는 교향악에 압도되고, 이후 솔리스트와 대비가 이루는 협주곡에 경도되었다가, 다시 개별악기의 매력에 탐닉하는 독주곡으로 이어져, 결국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실내악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브람스: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템포(tempo)의 다변성

브람스 피아노 5중주를 리허설하기 위해 모인 첫날이었다. 다채로운 사운드가 입체적으로 교차하니 연습실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서로 간의 악절이 충돌하거나 이구동성으로 에너지를 상승시킬 때, 아래팔의 숨털이 곤두설 정도로 음악적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독백하는 원맨쇼와는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였다.

2악장으로 넘어가던 순간 비올리스트가 불쑥 말을 건넸다. “템포 지시가 딱 브람스답지 않아? 안단테면 안단테고, 아다지오면 아다지오일 것이지. 안단테에 온 포코 아다지오까지 붙였잖아. 거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올리스트의 일성에 다른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

The image shows a page of a musical score for Brahms' Piano Quintet, 2nd movement. The page number '84' is in the top left corner. The score is for four vocal parts (1. Voice, 2. Voice, Tenor, Bass) and Piano. The tempo is marked 'Andante, un poco Adagio'. The music is in F minor and 2/4 time. The piano par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accompaniment with many sixteenth and thirty-second notes. The vocal parts have lyrics in German, including 'Anfänge, ein paar Adagio' and 'Anfänge, ein paar Adagio'.

<악보1> Brahms, J. (1985). Piano Quintet f-minor, op.34 2nd mov. (Andante un poco adagio). Ed. Eulenburg.

였다. 브람스가 악보에 기입한 안단테 운 포코 아다지오(*andante un poco adagio*)란 지시는 ‘안단테라도 약간 아다지오스럽게’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템포에 양다리를 걸친 모호한 지침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악장에서도 브람스가 템포를 지시하는 습관을 일별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템포를 다뤘는지 깨닫게 된다.

4악장을 시작하는 장면, 브람스는 소스테누토(*sostenuto*, 깊고 무겁게)라고 고만 지시하지 않고 포코(*poco*, 조금만)를 앞에 덧붙인다. 연주자들은 헛갈리기 시작한다. 작곡가가 의도한 적절한 중도는 어디까지일까. 음악의 흐름에 내맡겨 깊이 몰입하다가도 혹시 과하게 가라앉은 것은 아닌지 늘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서주에 이어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순간도 브람스는 알레그로(*allegro*)라고 선명히 요구하지 않는다. 뒤이어 마 논 트로포(*ma non troppo*, 그러나 과하지 않게)라고 소심히 토를 단다. 그뿐인가, 결승점을 향해 장렬히 산화해야 할 코다(*coda*) 부분에서도 프레스토(*presto*)라고 간단히 지시하면 될 걸, 또다시 마 논 트로포라고 사족을 붙인다. 질주하는 사람의 뒷덜미를 잡는 격이다.

그러니 누군가는 브람스 음악을 심형래 버전의 ‘루돌프 사슴코’에 빗대기도 한다. ‘달릴까? 말까?’ 애간장을 태워도 너무 태운다는 것이다. 나는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템포라는 음악적 장치를 통해 브람스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일변도의 흐름이 아니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변적 시간성에 기반을 두고 음악의 흐름을 전개했다. 브람스 특유의 신중함은 그의 <교향곡 1번> 4악장에서 또 한번 강화된다. “알레그로 논 트로포 마 콘 브리오(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알레그로, 과하게는 하지 마. 그래도 생기는 있어야!”

그러므로 앙상블의 협업에 있어 가장 먼저 조율되어야 할 것은 다양한 ‘시점’에 관한 동의였다. 각양각색의 다이내믹과 템포에 음악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때, 어느 지점부터 몰고 갈 것인지, 어디까지 혹은 얼마만큼 크고 작아질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했다. 음악이 ‘시간 예술’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인데도, 독주로 고군분투하며 혼자 모든 것을 감행해도 될 때는 미처 몰랐던 진리였다.

다양한 선율을 동시에 듣는 음악적 순간

연주자들은 실내악을 통해 다양한 성부와 음색을 듣는 귀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동시에 들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지금 주선율을 연주하고 있는지, 아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선율을 보조해야 하는지, 혹은 주선율과 동등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대선율로 기능하는지 등을 매 순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독주곡처럼 자신의 기분만 따르며 연주할 수 없다. 다양한 선율을 동시에 듣는 음악적 순간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통찰하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킨다.

피아노와 현악4중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5중주’는 4중주에 비해 현악기군으로부터 피아노가 완벽히 독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보통의 화음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4개의 성부로 구성되는데, 이때 현악 4중주단은 네 개의 층위를 각각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에 의해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피아노 4중주의 경우, 현악기 주자가 3명이

어서 모자란 성부 하나를 피아니스트가 바쁘게 채워야 한다. 현악기의 결핍을 건반 악기로 메꾸다 보니 음색의 조화가 빼격거려 어긋나기도 한다. 반면 피아노 5중주는 현악기군이 이미 완성된 화성을 형성한다. 때문에 피아니스트로서는 독립적이고도 자유로운 행보가 가능해진다. 어느 때는 마치 협주곡을 연주하는 솔리스트처럼 스트링과 당당히 대적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브람스 피아노 5중주의 마지막 악장, 포코 소스테누토-알레그로 논 트로포(poco sostenuto-Allegro non troppo)를 리허설 하던 때 특히 첼리스트와 열띤 논쟁을 나누었다. 가볍고 귀엽게 동동거리던 춤사위가 육중한 하중을 덧대어 전투력을 더하는데, 여기 투쟁적인 악상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피아니스트의 왼손과 똑같은 선율로 움직이는 첼리스트의 동선이었다. 이렇게 저음역을 중음으로 덧대어 연주하면 음색 자체의 하중이 무겁고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 브람스가 화성을 배치하는 방식은 낮은 음역에 뽀뽀이 몰려 있다. 반면,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슈만은 브람스에 비해 화성의 배치가 열려 있어 공기의 순환이 자유롭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악절에서도 슈만이 고음역의 악기를 활용해 화려한 공중전을 선호한다면, 브람스는 첼리스트를 앞세워 육중하게 움직이는 지상전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악장은 론도(Rondo)의 유장한 반복을 거치며 결승점인 코다에 이

른다. 악기들은 낮은 음역부터 시작해 천천히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며 상승한다. 브람스가 템포를 다루는 방식은 결승점을 향해 질주하는 순간에도 여실히 드러나, 앞서 언급했듯 프레스토라 명료히 지시하지 않고, 논 트로포를 부연하며 연주자에게 다변적 시점의 ‘절제’와 ‘객관성’을 요구한다. 차곡차곡 쌓아온 갈등을 폭발시켜야 하는 순간, 그의 음악은 불꽃을 발하며 산화하지 않는다. 대신 목구멍 뒤로 삼켜 버린다. 이렇게 내장에 쌓인 불발탄은 억제된 듯 응결된 브람스 특유의 악상이라 할 수 있다.

■
실내악,
음악적 얼굴이 살아있는 입체적 음향

‘음악적 얼굴’이 살아있는 실내악은 익명으로 균집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다르다. 개별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의 음악을 위해 서로 동화되어야 하는 오케스트라에 비해 실내악은 다양한 악기의 개성이 생생히 살아 있는 개인주의자들의 조합과 같다. 그러므로 오케스트라가 음악적 사회라면 실내악은 대화 공동체에 빚달 수 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지만 실내악은 연주자의 집단지성이 작동한다. 음악적 의견일치를 위해 개별 단원 모두가 실험과 타협, 조정과 다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어떠한 위계 없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듯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적 실현은 실내악이라는 음악 공동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공간 혹은 머릿수의 차이는 음악의 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거대한 콘서트홀에서 100여명의 음악가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는 교향곡의 경우, 대중적 소구력을 갖춘 멜로디에 작곡가의 자의식이 거창하게 투영되곤 한다. 반면 실내악은 관현악처럼 크고 화려한 음향만 쫓지 않

는다. 귀에 쏙 박히는 선율의 기득권을 용납하지 않은 채, 다양한 성부를 평등하게 조화시키면서 청중으로 하여금 협소하고 알팍한 음악적 취향을 극복케 한다.

현악4중주단과 합주를 이루는 동안, 피아니스트로서는 낮은 광경을 종종 맞닥뜨리기도 했다. 현악기 주자의 귀는 다른 악기군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다. 모든 낱낱의 음정을 스스로 조율해야하기 때문이다. 건반악기 주자는 조율사가 만든 음정을 그대로 수용하며 하나의 음을 하나의 건반에 대칭시키지만, 현악기 주자는 지판을 짚는 손가락의 미세한 차이, 0.01의 미세한 거리 혹은 0.01의 세밀한 각도에 따라 같은 음이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악보에 ‘솔’음이 그려져 있다면, 피아노에서 솔은 솔일 뿐이지만, 현악기에선 밝은 솔 혹은 그보다 살짝 낮은 솔이 가능하다.

음정뿐만 아니라 현악기 주자들은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과 프레이징(phrasing)을 ‘보잉(bowing)’을 통해 섬세히 다듬어 나갔다. 말춤으로 제작된 활을 아래로 내려 그를 건지, 아님 위로 올려 그를 건지, 음가는 어느 음표까지 지속시킬 건지, 다양한 토론을 통해 합의된 보잉이 피아니스트에게는 손가락 번호와 페달링을 정밀히 다듬는 기초공사에 비견할 만했다.

슈만:

이질적 물성이 서로를 지탱시킬 때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안단테 칸타빌레(Andante cantabile)’ 악장을 리허설 하려는데, 첼리스트가 낮게 속삭였다. “피아노는 이런 소리를 낼 수 없어. 현악기여서 가능하지.” 한숨을 토하듯 현악기의 올림이 바닥으로 털썩 내려앉자 바이올린 선율이 중력을 거스르며 포르타멘토(portamento: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옮겨 갈 때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는 방법)로 떠올랐다. 단 세 마디의 짧은 도입부인데도 축축한 감성을 일거에 무장해제 시켜놓는 순간이었다.

서주에 이어 마음을 어루만지는 첼로 선율이 등장한다. “이 음악을 들을 때면 중년의 여인이 떠올라. 빛바랜 사랑을 쓸쓸히 회상하는 장면처럼…….” 비올리스



<악보2> Schumann, R. (2000). Piano Quartet Eb-Major, op.47 3rd mov. (Anadante cantabile). Ed. Peters.

트의 언급에 나는 첼로의 애절한 음색이 자칫 신파로 연결될지 모른다 경고한다. 슈만은 이 짙막한 선율에 7도 음정을 두 번이나 포함시켰다. 선율작법에 있어 ‘7도’는 감정의 불안한 동요를 의미한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감정의 파고가 크게 일렁거리는 선율을 이번에는 바이올린이 한 옥타브를 높여 이어 받는다. 나무의 울림이 자아내는 호소력이 한층 더 고양될 때 피아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피아노의 잔잔한 반복음과 부드럽게 에워싼 화성은 현악기의 절절한 토로가 신파로 매몰되지 않도록 의연히 중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감정은 고양되더라도 난파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듯 피아노와 현악기의 물성은 서로 이질적이나 동시에 서로를 지탱시켜 준다. 음향의 다양성은 실내악의 깊이를 배가시킨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현악기의 직접적인 호소력에 비하면, 피아노는 중성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지닌 악기다. 슈만은 앞서 전개된 주선율을 피아노의 음색에 최적화시켜 변형한다. 리듬은 엇박으로 해체되고 음정의 폭도 점진적으로 움직이는데, 심장을 톡톡 건드리는 듯한 피아노의 악상은 한곳에 머물지 못한 채 부유하고 방황한다. 이때 비올라의 중음역이 목소리를 덧대어 피아노를 돕는다. 여인의 쓸쓸한 ‘현재’가 현악기로 표현됐다면, 피아노가 바통을 이어받는 이 부분은 여인이 애절히 회상하는 찬란한 ‘과거’일 듯도 하다.

■ 먼 거리 낯선 조성, 과감한 접합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의 구조는 A-B-A'라는 전형적인 3부분 형식(ternary form)의 골격을 지닌다. A로 둘러싸인 B부분은 피아노와 현악기가 공히 차분한 호흡으로 전개된다. 선율의 수직적 굴곡보다는 화성의 완만한 수평에 기대어 음악을 이어가는데, A가 인간의 감정을 깊숙이 들춰내 보였다면, B는 자연의 풍광을 멀리 관조하는 듯한 양상이다. 그 공간적 거리를 널찍이 떼어 놓기 위해 작곡가는 먼 거리의 조성을 선택했다. 플랫(b)이 2개 붙은 내림 나장조의 A부분은 돌연, 플랫이 6개 붙은 내림 사장조의 B부분으로 연결되는데, 가까운 조성의 동질성에 기대기보단 낯선 문화의 유입에 비견할만한 먼 거리 조성, 그 과감한 접합을 시도한 것이다. 기존의 관성을 흐트러뜨린 작곡가의 실험정신 덕택에 연주자와 감상자는 날 것과 같은 일탈을 경험할 수 있다.

음악은 다시 A'로 이어진다. A'는 초장에 등장했던 A와 똑같은 외양이 아니다. B의 시공간을 거치며 한 살 더 나이를 먹은 듯 성숙하다. 중년 여인의 토로는 화려한 음형으로 몸집을 불린다. 쓸쓸한 체념으로 퇴락하지 않기 위해

부산히 기운을 내어보지만, 그 파닥거림이 애뜻하다. 흑백사진과 같던 회상은 감정의 파고를 넘니들며 총천연색 찬란한 빛으로 반짝인다.

이제 여인의 애절한 사연을 마무리할 차례이다. 슈만은 통상적인 코다로 수렴하지 않았다. 이제껏 들려준 신파와는 달리 산뜻한 음색적인 실험을 감행하는데, 음악의 뿌리라 할 ‘배음(overtone)’의 원리를 심분 활용한다. 배음이란 한 음을 연주한다 해도 홀로 울리지 않으며, 실제로는 여러 음이 함께 공명하는 음악의 기본 원리를 일컫는다. 피아노가 음의 뿌리(기음)를 울리자, 공기 중에 숨어 있던 공명음들이 현악기에 의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개인적으로는 전 악장을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악절로 꼽는 순간이다. 여인의 회상은 배음의 마법으로 인해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이 풀려난다. 달한 회상이 아니라 열린 현재로 남겨둔 작곡가의 음악적 역량은 언제 들어도, 언제 연주해도 늘 탄성을 자아낸다.

■ 목소리를 잃어버린 무성 피아노

실내악의 효율적 연습을 위해 스튜디오에 아담한 디지털피아노를 하나 더 들여놓았다. 본래의 용도라면 전기의 힘을 빌려 소리를 내지만 멀찌감치 플러그를 치워 버렸다. 그러니 88개의 건반을 제대로 갖춰어도 소리는 먹통일 수밖에 없다. 이 악기에 매료됐던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무성(無聲) 피아노’의 기능 때문이었다. 비록 말문이 막힌 피아노라 할지라도 흥미로운 연습방법들을 발굴하면서 이 악기와 소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와 연습하다보면 신체동작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할 수 있다. 보통의 악기에선 몸의 움직임이 음색의 굴레, 혹은 청각에 묶여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무성 피아노에서는 촉각과 근육이 전혀 새로운 인지를 일으키게 된다. 이 동작이 꼭 필요했던가, 왜 유독 이 악절에서 근육이 뭉치는가 등 소리에 매몰되었던 문제의식을 새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억눌린 청각은 한편으론 전혀 새로운 ‘청각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물리적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 안의 울림은 무궁무진 상상의 나래를 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큰 울림을 일으킨다니 얼마나 매력적인 역설인가. 이렇듯 소리 없는 피아노의 또 다른 진가는 ‘경청’에 있다. 실내악처럼 여러 악기와 협업을 이루는 작품에선 더욱 반짝이는 역량을 발휘한다. 실내악 연주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청, 다양한 목소리를 공들여 듣다

우선 실내악 음반을 풍성한 음량으로 틀어 놓는다. 이때 피아노 파트는 무성 악기로 온 힘을 다해 연주한다(그러나 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내 육중한 소리에만 매몰되어 있던 이기적 관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다른 악기들의 여러 성부들이 생생히 살아나는 ‘입체적 경청’을 경험하게 된다. 피아노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악기라 푸념해 왔건만, 무성 피아노는 ‘함께 어울릴 궁리’를 제시해주니 놀라웠다.

독주곡에도 이 연습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연주자의 음반을 걸어놓고 그의 연주가 마치 나인 듯 무성 피아노를 연주해본다. 내가 허투루 흘려버렸던 악절들이 의외의 순간에 빛을 발할 때, 템포를 밀고 당기는 루바토(rubato)가 나의 어조와 사뭇 다를 때, 내 고착된 습관을 돌이켜보게 된다. 내 해석과의 교집합이 반갑다가도 나와 전혀 다른 여집합이 참신하게 느껴져 스스로의 객관화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의 연주를 통해 그로 살아보는 것은 역지사지의 또 다른 경지와 같다.

이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침묵의 악기는 마음속 더 큰 울림을 일으키고, 다른 악기의 음색과 타인의 해석을 귀 기울여 듣게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공들여 듣는 경청은 역사사지와 객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니 피아노는 매력적인 역설을 지닌 악기가 아닐 수 없다.

■
피아노,
다양한 음색을 너그럽게 품는 중립적인 음색

피아노와 마주 앉다 보면 종종 흑백의 조각들이 맞물린 거대한 가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첼로처럼 부둥켜안을 수 없고 클라리넷처럼 감싸 쥐 수 없다. 그저 마주 보되 간격마저 유지해야 한다. 손끝을 통해 접촉하는 상대는 건반이지만 실제 소리는 건반 배후의 육중한 울림통에서 태어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전부가 아닌데도 본질(울림통)을 잊고 외형(건반)에 현혹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운드가 담겨 있는 울림통 안에는 230여 개의 현(鉉)이 70~300kg의 장력을 버티며 팽팽히 당겨져 있다. 건반과 연결되어 양털로 둘러싸인 망치(해머)는 이 현을 때려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를 타현악기(打絃樂器)라 분류한다.

피아노의 소리는 태어난 동시에 사라지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현을 때린 해머는 건반의 복귀와 상관없이 곧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 건반을 계속 누르더라도 그 음은 사실상 소멸해 한 번 만들어낸 소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한번 소리를 내고 나면 다른 악기처럼 강약에 변화를 줄 수



출처: <https://pxhere.com/en/photo/1349108> (CCL)

도, 음을 지속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피아노로 음을 연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청각적 환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피아니스트는 이 착청(錯聽)에 맞서 분투한다. 건반을 누르기 전 소리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면서 음과 음을 연결하는 레가토(legato)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 한 번 건반을 누르고 나면 끝, 가장 비음악적인 악기라 종종 투덜거리기도 한다.

이런 투정을 상쇄하고도 남을 많은 장점을 피아노는 갖고 있다. 그중 하나가 다양한 음색을 너그럽게 품는 독립적인 음색이다. 음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피아노의 음색은 고르고 음량은 일정하다.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을 연주

할 때 마치 다른 악기의 음색처럼 들리는 클라리넷 같은 악기와는 그래서 다르다. 중립적인 음색의 피아노는 어느 악기와도 잘 어울려 앙상블의 파트너로 늘 독보적이다. 노래하는 사람의 노고를 집어삼키지 않아 성악가와도 훌륭한 합을 이루고, 바이올린 소나타는 반드시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필요로 한다.

피아노는 10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실내악 앙상블과 같다. 여러 층위로 겹친 다성음악의 입체적 구조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덕택이다. 이를 테면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바흐작품목록 971>을 연습할 때, 나는 각 악장마다 다른 편성을 떠올리며 청각적 상상을 부추기곤 한다. 1악장은 독주(solo)와 합주(tutti)가 번갈아 대화하는 장면과 같고, 2악장은 통주저음을 타고 유려하게 펼쳐지는 오보에의 선율을 상상하며, 3악장은 찬란히 질주하는 첼발로의 음색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곡가들은 음악적 실험을 위한 탁월한 도구로 꾸준히 피아노를 선택해왔다. 피아노 앞에서 작곡하면서 음색의 조합을 확인했고, 자신의 영감을 물리적 울림으로 번역했다. 몬테베르디(Monteverdi)는 피아노를 통해 불협화음을 발견했으며,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아노 없인 작곡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바흐: 독립적인 성부의 다채로운 결합

피아니스트들에게 <바흐의 평균율>은 평생동안 꾸준히 일용해야 할 양식과도 같다. 이 악보집에서 바흐는 푸가(fuga) 형식의 완성을 이뤄냈다. 여러 독립적인 성부를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엮어내는 다채로운 가능성을 실험했는데, 다성음악의 모든 것을 성취한 동시, 모든 가능성을 소진시킨 것이다. 이때 연주자는 각기 다른 입체적인 음색으로 여러 성부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바흐의 다성음악은 그래서 품이 많이 들고 만만찮은 공력이 필요하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오른손이 주선율을 이끌고 왼손이 펼친 화음으로 배경을 떠받치는 간결한 2분법이 아니다. 여러 성부를 동시에 연주해야 하니 양손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뒤엉킨다. 몽똥그려 몽개지지 않은 채 입체적 수평으로 개별 선율의 흐름을 풀어내려면 고도로 정제된 손끝 감각과 청각적 몰입이 필요하다.

이렇듯 층층이 쌓여 수평으로 흐르는 바흐의 다성음악 중에서도 인간의 귀가 가장 현혹되는 성부는 아무래도 하늘을 활공하는 소프라노와 땅 속에

뿌리내린 베이스라 하겠다. 이 둘은 물리적 거리가 뚜렷해서 높은 음역은 오른손에, 낮은 음역은 왼손에 그 역할을 쉽사리 분담시킬 수 있다. 그런데 푸가 연주의 성패는 오른손과 왼손이 설 새 없이 주고받으며 연주해야 할 중간 성부에 있다. 알토와 테너 중간성부는 하늘의 소프라노와 땅 밑의 베이스를 아우르고 엮어내면서 선율의 교차를 세밀하게 직조한다. 소리의 직물은 중간성부의 중재 없이는 파탄에 이르고 만다. 각각의 성부가 조화롭게 공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제 선율에 부단히 조용하면서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이처럼 중간성부의 조율, 상대방에 대한 부단한 조용,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기 조절은 바흐 평균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리이자 미덕이다.

그러므로 바흐의 평균율은 지금 이 땅에서 함께 들어야 할 음악일지 모른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분열된 양극화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 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46.1%. 그 찬반의 비율이 소수점 첫 자리까지 똑같았다. 중간성부의 교집합을 공유하지 못하니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던가. 게다가 온갖 정파적 미디어는 상대방의 선율엔 아예 귀를 닫아 버리고 내 성부의 의견만 계속 반복해 듣길 부추긴다.

‘너는 너의 말을 하고, 나는 나의 말을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동떨어진 괴리를 줄이고 중간 성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설득이 가능한 세상을 구현

할 수 있을까. 자기편 목소리만 반복해 강화하고 다른 편 목소리는 물리쳐 혐오하는 우리 사회에 한 사람의 음악가로서 바흐의 푸가를 공들여 들어보자는 제안하고 싶다. 중간 성부의 조율과 상대방에 대한 부단한 조율과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기 조절의 미덕이 바흐의 음악 속에 생생히 살아 있으니 말이다.

■
바이올린 가족,
순혈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로

얼마 전, 실내악 공연을 함께 감상한 지인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리며 질문했다. 왜 바이올린과 첼로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플루트와 바순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현악기군의 동질적인 음색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을까. 학생들에게서도 종종 받는 질문이다. ‘직업인인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심분 공감하며 답변을 시작했다.

실내악은 개성이 제각각인 악기들로 하나의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음향 공동체이다. ‘관현악의 팔레트’와도 같아서 어떤 악기를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시키느냐에 따라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음색이 구현된다. 음악용어로는 ‘관현악법’이라 일컫는데 작곡가의 역량과 취향을 헤아리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현악기군은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관악 주자에 비해 템포의 구애 없이 음표의 균집을 능수능란하게 연주할 수 있다. 관악기는 금방 숨이 차고 입술근육이 쉽게 풀리지만, 현악주자의 활은 오랜 시간 연주해도 지치지 않는 덕택



출처: <https://pxhere.com/en/photo/956977> (CCL)

이다. 여러 음표를 흔들림 없이 연주할 수 있는 특성은 작곡가에게 크나큰 매력 아닐 수 없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의 악기로 구성된 현악기군은 크기만 다를 뿐 악기의 모양과 구조가 같아 ‘바이올린 가족’이라 통칭한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악기는 사람의 몸을 닮았다. 실제 명칭도 인체를 연상케 하는데, 탄성이 높은 가문비나무로 울림을 일으키는 앞면은 ‘배(belly)’라 불리

고, 딱딱한 단풍나무로 악기를 지탱하는 뒤판은 ‘등(back)’이라 칭한다. 줄이 감기는 ‘목(neck)’ 부분도 사람의 몸을 떠올리게 한다.

현악기는 몸통의 크기가 크고 현이 길어질수록 음역이 낮아진다. 바이올린보다는 비올라가, 첼로보다는 더블베이스가 낮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음색 자체는 동질적이다. 악기의 모양과 연주법이 같은 까닭이다. 비올라의 저음역과 첼로의 고음역, 이 두 음색을 분간하는 것이 종종 어렵게 느껴질 정도다. 오죽하면 같은 혈통의 ‘바이올린 가족’이라 묶이겠는가. 그만큼 현악기군의 소리는 서로 이물감 없이 섞여 풍성하게 어우러진다.

■ 통일성에 기반을 둔 다양성의 발현

실내악에서 현악기군의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장치는 운궁법의 통일이다. 활을 아래로 내려 그을 땐 중력의 하중을 받아 짙은 소리가 나고, 위로 그을 땐 그보다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똑같은 선율을 연주하더라도 한 음마다 각 활을 그어 개개의 음을 강조할 수 있고, 아니면 활을 연결해 음을 그룹화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 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가신다’처럼 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악상의 문맥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현악기군의 음색은 오랫동안 들어도 싫증나지 않는다. 인간의 음성과 유사한 덕택이다. 말총으로 만든 활 털로 금속 현을 마찰해 소리를 내는 현악기 특유의 착현 기법은 풍부한 배음과 표정으로 노래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그러므로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윽한 음색이 만발한다. 반면 피아노처럼 현을 때려 소리를 내는 타현악기는 현악기처럼 폐부를 찌르는 서정적 음색보다는 중성적 음색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악기군은 특유의 동질적 음색 덕택에 작곡가는 바이올린에서

더블베이스까지 7옥타브의 넓은 음역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닮은 목소리가 발성하는 균질적 사운드는 작곡가에게 극복의 대상이었다. 음향적 차이로는 다양성을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신 음악의 본질, 즉 선율과 리듬, 화성과 대위법 등에 집중해 활로를 찾았다. 통일성에 기반을 둔 다양성의 발현, 현악 앙상블의 윤리이자 미덕이 아닐 수 없다.

■ 실내악의 인문주의적 사명

기말고사의 일환으로 감상시험을 진행했다. 강의 중 다뤘던 각 실내악 작품에서 주요 장면을 발췌해 30초에서 1분 정도 들려주고 그 악절이 어떤 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양한 음악적 장면을 구별하기 위해 학생들은 실내악 작품을 반복해 들으며 여러 악기군에서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악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실내악에선 ‘음악적 진술’이라 할 주제 선율이 빈번히 등장한다. 중요한 음악적 순간을 구분 짓는 이 주요 주제가 학생들의 기억에 뚜렷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 한번 기억한 선율은 악곡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다음 번 등장을 향한 청각적 기대감을 높이곤 한다. 실내악 1악장은 대개 소나타 형식을 기반으로 전개되는데, 주요 주제는 제시부의 첫 도입 이후 발전부의 다채로운 변형을 거쳐 재현부에서 재등장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실내악을 통해 다시 만난 주제를 기억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강의 내내 가장 공들여 강조하는 것은 ‘경청’의 미덕이었다. 주선율이라는

강자의 주장뿐 아니라 심포 같은 약자의 침묵마저 존중하는 이 미덕을 때론 시민의식에 빚대기도 한다. 실내악에선 자신의 파트만 훌륭히 연주한다고 해서 충분할 리 없다. 듣지 않으면 다른 파트를 삼켜버리고 앙상블의 균형을 무너뜨리니 말이다. 듣기만 해서도 충분하지 않다. 내 소리가 음형의 파고에 익사당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단원은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음악가들을 설 새 없이 경청해야 한다. 하나의 성부는 다른 성부에 의해 생기를 북돋게 되고, 음악엔 이들 성부들의 대립과 헌신이 공존한다.

경청은 사회적 기능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이나 코멘트를 이어가지만, 음악에서는 2개 이상의 성부가 동시에 대화를 하며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내악 앙상블에서 여러 성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 견해를 동시에 듣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실내악의 모든 악기군은 각 성부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입체적인 통합을 지향한다. 비단 내파트뿐만 아니라 서로가 몰두한 것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다른 성부의 자유와 개성을 수용할 여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내악을 통해 인문주의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드러내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성부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 음악적 유토피아는 소음의 소란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 유의미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다양성의 조화로운 공존, 그 실현 가능성을 실내악 앙상블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증명해왔다. ❖

조경숙

만화평론가, 테크-페미 액티비스트. 2016년부터 <주간경향>에 만화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동료들과 함께 합정만화연구학회를 꾸려 만화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개발자이자 엄마, 만화평론가로서의 삶을 담은 에세이 <아무튼 후드티>를 썼다.

조은아

피아니스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감독 역임. “음악적 깊이와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보기 드문 연주자”란 평을 들으며 연주뿐 만 아니라 음악관련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 왔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음악 분야 첫 강연을 진행 했고, 한겨레의 ‘문화현장’, 경향신문의 ‘세상속 연습실’을 거쳐 현재 한국일보에서 ‘조은아의 낮은 음자리 표’를 연재 중이다. KBS 클래식FM 방학특집, 서울시향 토크 콘서트, KBS 교향악단 실내악시리즈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진행하며 2018년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보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민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링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율판은 불법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영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현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경희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운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다장자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쬐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영영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Diversitas

권호 16호
발행일 2021년 9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